



Domaine Olivier Leflaive, Puligny-Montrachet 1^{er} Cru “Les Folatieres” 도멘 올리비에 르플레브, 뿔리나 몽라쎌프리미에크뤼 “레 폴라띠에르”

Winery Description and History

1984년 10월에 Olivier Leflaive는 그의 형 Patrick과 그의 삼촌 Vincent의 도움으로 새로운 부르고뉴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오로지 한가지 목표(Domaine Leflaive로부터 배운 모든 지식을 다양한 다른 레드와 화이트 부르고뉴 와인 양조에 적용시키는 것)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양조 원칙은 수확 시기에 재배자나 도멘과 같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포도를 구매하는 것이며 이는 최고의 부르고뉴 와인 생산자 중의 하나로서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다. Olivier Leflaive와 와인 양조 전문가 Franck Grux는 Puligny-Montrachet에서의 그들의 이미지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경험과 미각 및 직감에 의존하여 와인을 만들며 부르고뉴 각 지역의 개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ote de Beaune의 중심에 위치한 Puligny-Montrachet의 화이트 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조약돌이 많은 석회 점토질의 토양은 배수 및 일조량이 매우 좋으며 Puligny Montrachet 지역의 4개의 포도원으로부터 공급받은 포도를 블렌딩하여 양조하였다.



Cote de Beaune, Bourgogne / France



Chardonnay 100%



2015



13.5% / 750ml



석회질의 찰흙질



12개월 프렌치 오크 숙성



생기넘치는 초록 금빛



잘익은 과일의 대담하고 복합적인 향기



힘있고 풍부한 맛과 자연스런 집중도, 다양한 층의 복합적인 풍미



볼로방, 화이트 소스와 버섯을 곁들인 오리고기, 고기완자, 크림과 발효치즈로 요리한 닭고기



WS : 92 Points (2013 Vin, 2012 Vin), 90 Points (2011 Vin)

WA : 90 Points (2012 Vin), 90 Points (2010 Vin)